Market Index / 7일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유가(WTI, 달러)	환율(원)		살때	팔때		살때	팔때
▼ 2176.99	▼ 753.45	▲ 62.25	1USD	1187.42	1146.58	1EUR	1334.71	1282.63
-19.33	-8.37	+0.31	100￥	1073.27	1036.37	1CNY	180.77	163.57

어촌지역 사업체 제주시 '전국 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국 423개 어촌지역 고용통계
종사자 6만여명… 어업 대정읍 > 구좌읍 > 한경면 순

제주시가 전국 시군구 중에서 어촌지역 산업별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통계청의 경제 총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토대로 어촌계나 어항이 있는 전국 423개 어촌지역 고용통계를 작성한 결과 2015년 말 기준 전국 어촌지역 사업체 수는 32만44개로 전국 사업체 387만4167개의 8.4%를 차지했다.

어촌지역 상위 10개 시군구의 산업별 사업체수인 경우 제주시가 숙박 및 음식점업 4036개와 도매 및 소매업 3637개, 운수업 1900개 등으로 가장 많았다. 서귀포시도 숙박 및 음식점업 3511개와 도매 및 소매업 2224개 등으로 5위권을 기록했다.

주요 산업분류별 사업체수를 비교한 결과 어업은 서귀포시가 83곳으로 1위를, 제주시가 73곳으로 2위를 나타냈다. 특히 제주시 지역은 소매업(2592)과 숙박업(1285), 음식점 및 주점업(2751) 등이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았으며, 식료품 제조업(351)과 도매 및 상품중개업(938)에 있어서도 나란히 2, 3위를 차지했다.

읍면동에 있어서도 어업은 서귀포시 대정읍과 제주시 구좌읍, 한경면이 1~3위를 차지했다. 제주시 애월읍은 숙박업(350개)이 읍면동 중에서 두번째 많은 곳으로 분류됐다.

종사자 수는 168만4460명으로 전국 종사자 2088만9257명의 8.1%였다. 제조업 52만1227명, 도매 및 소매업 21만1729명, 숙박 및 음식점업 21만695명, 건설업 10만9248명, 운수업 10만8442명 순이다. 제주지역은 9만9599명이며, 지역내 점유율은 39.8%였다. 시군구별로는 부산 강서구가 9만46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시는 6만571명으로 6위권이었다.

종사자 상위 시군구별로 보면 서귀포시는 어업(422명)과 숙박업(5012명)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제주시는 음식점 및 주점업(8102명) 1위를 비롯해 식료품 제조업(2243명)과 도매 및 상품중개업(4574명), 소매업(6061명), 숙박업(3552명)에서 각각 2위 지역으로 밝혀졌다. 읍면동별로는 서귀포시 예래동(1477명)과 제주시 애월읍(1001명)이 1, 2위를 기록했다.

어촌지역 사업체 매출 총액은 529조원으로 전국 사업체 매출액 5천311조의 10.0%를 점유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06조원으로 가장 많고, 울산과 충남이 78조원, 부산이 약 75조원, 경기도가 약 61조원으로 뒤를 따랐다. 제주도는 13조7020억원이었다. 지역내 점유율은 37.8%를 차지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카네이션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화훼공판장을 찾은 시민들이 카네이션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효돈 오형준·허인숙 부부 5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대근)는 농협중앙회가 선발·시상하는 '이달의 새농민상(像)' 5월 수상자로 효돈농협 소속 조합원인 오형준(54)·허인숙(53)부부가 선정돼 지난 2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이 부부는 90년대 초반 서귀포시 신효동에서 농업을 시작해 준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품질 타이벡 감귤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 효돈농협공선회에 가입해 회원들과 함께 영농기술 교육 및 회의를 통해 우수농산물 생산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GAP)를 받았다. 조상윤기자

유류세 인하폭 축소 첫날 기름값 큰 폭 상승

도내 휘발유 값 하룻새 47원↑… 전국서 두번째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한 첫날인 7일 제주지역 기름값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제주지역 휘발유 값은 ℓ당 평균 1565.44원으로 전날보다 47.73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는 전날보다 ℓ당 37.46원 오른 1426.64원에, LPG는 15.34원 인상된 895.07원에 팔리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 휘발유 값은 서울(1593.73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전국 평균(1496.77원)과 비교해서는 96.96원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제주시내 대다수 주유소는 1595원에 휘발유를 팔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시행한 유류세 인하 조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함에 따라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 폭은 15%에서 7%로 줄였다.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인상 요인이 생긴 것이다.

앞으로 기름값 인상 추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 기름값이 앞으로 더 오를 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통상 국제유가 인상 분은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형 신품종 양파 선발… "균일·상품성 높아"

적응시험 거쳐 농가 보급

제주지역에 맞는 신품종 양파가 개발돼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제주도농업기술원(원장 송승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양파 종자시장 규모는 약 348억원이지만 국내 재배면적의 70%를 수입품종에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수입 종자 가격은 국내산보다 60~70% 비싼 수준이어서 종묘비가 생산비의 16%를 차지해 수입대체 가능 우수품종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4년부터 지역품종 육성을 위한 연구 결과 제주형 신품종 양파 'JS06M14-2'를 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농업기술원 육성 40여 계통에서 선발된 이 품종은 원형이 균일하고, 도복 및 추대가 적을 뿐만 아니라 수량성도 높고 숙기가 4월 상순으로 다소 빠른 편이어서 조생 계통으로 선발됐다.

조사 결과 도내 서부지역 주 재배품종인 수입산 '마르시노310'에 비해 숙기는 비슷하지만 균일성과 상품성에서 손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공동연구하고 있는 5개도 농업기술원에서 지역적응시험 등을 거쳐 우수성이 입증되면 품종보호출원하고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외국인 탑승률 50% 미만 전세기 지원 배제

제주관광공사 지원기준 강화

앞으로 전세기를 이용해 외국인을 제주로 유치한 경우라도 외국인 탑승률이 50%를 밑돌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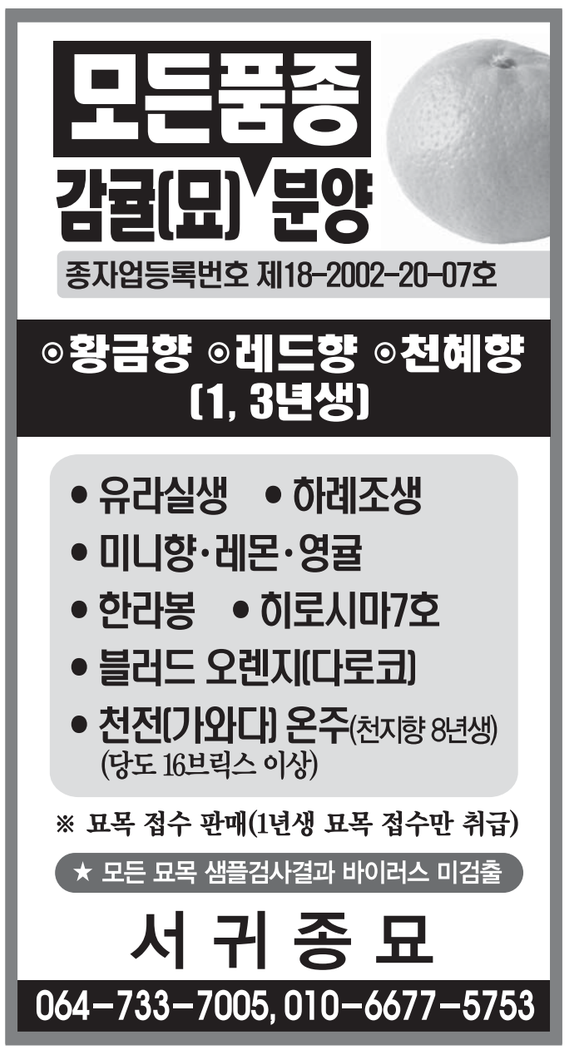
제주관광공사는 이 같은 내용으로 변경한 2019년도 전세기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 측은 올해도 작년처럼 한달에 5편 이상 정기성 전세기를 띄워 제주로 외국인을 유치한 여행사나 항공사에게 편당 400만원, 4편 이하의 단발성 전세기의 경우 편당 700만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다만 올해부터는 편당 공급좌석 대비 외국인 탑승률이 50%를 밑돌면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탑승률이 50% 미만일 경우 지원금을 100만원 삭감해 지급했었다.

100석 미만 소형항공기를 띄웠을 경우 100만원을 삭감해서 주던 것도 올해부터는 120석 미만과 200만원 삭감으로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이 밖에 전세기 사업자 당 노선별로 최대 50편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것은 30편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던 아웃바운드 모객광고비는 800만원으로 각각 축소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이 같이 변경된 기준을 토대로 오는 31일까지 전세기 운항 계획을 접수할 예정이다. 바뀐 전세기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전세기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원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지원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